

女學生의 初經에 關한 調查 研究

(서울市內 女子中學生을 對象으로)

金 美 和

—Abstract—

A study on the menarche of middle school girls in Seoul

Mi Hwa Kim

It is assumed that menarche is affected not only by the biological factors such as nutrition and genetic heritage, but also it is affected by other socio-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weather, geographic location, education and level of modernization. Also recent trend of menarche in Korea indicates that a lot of discussion are being generated to the need of sex education as a part of formal schoo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by determine the age of menarche, the factors relevant to time of menarche and psycho-mental state of students at the time in menarche and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 of school health education relate to menarche of adolescents. The total number of 732 girls was drawn from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of 4 middle schools in Seoul.

For the data colle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May 1 to May 20, 1982 by using prepared questionair.

The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1. Mean age at menarche and the percent distribution of menarche experienced. It was observed that about 68.7% of sampled students have been experienced menarche at the time interviewed. For the each group, age at menarche is revealed that among the students about 37.8% are experienced menarche for under 12 years old group, 62.1% for 13 year-old group, 80.6% for 14 year-old group and 95.5% for over 15 years old. In sum it was found that the mean age at menarche was 12.3 years old, ranged from age at 10 as earlist the age at 15 as latest.
2. Variables associated with age at menarche.
 - 1) There was tendency those student who belong to upper class economic status have had menarche earlier than those student who belong to lower class. Therefore, economic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age at menarche.
 - 2) In time of mother's education level, it is also found that those students whose mother's education level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are experienced menarche earlier than those students whose mother's education levels from primary school and no-education.
 - 3) However, in connection with home disciplin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ge at menarche and home disciplines which are being treated "Rigid", "Moderated", "Indifferent".

- 4) Degree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daughter about sex matters was found to be associated each others in determination of age at menarche.
 - 5) It was found that high association between mother's menarche age and their daughter's menarche age was observed. Mother's age at menarche earlier trend to be shown also as earlier of their daughters.
 - 6) Those students belong to "D & E" of physical substantiality index are trend to be earlier in menarche than those students in the index "A & B".
3. Psycho-mental state at the time of menarche. Out of the total students 68.2% had at least one or more than one of subjective symptoms. Shyness was shown as most higher prevalent symptom and others are fear, emotional instability, unpleasant feeling, depression, radical behavior, inferior complex and satisfaction appeared. Very few cases are appeared be guilty and stealing feeling.
4. The present status of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related to menarche. As to th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menarche, teacher was a main source with average index 5.88 and the other informants were mother & family member, friends, books and magazines, movies, television, and radio. For the problem solving at menarche, mother & family members were subject to discussion with an average index 6.02 as high. The others for discuss and knowledge about menarche were books, magazine, friends, teachers, and self-learning based on own experienced. The time of learning about menarche, it was learned as highest percentage with 43.2% at a 6 grades of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with 34.4%, 5 grade of primary school with 18.2%, and 4 grade of primary school with 4.0% respectively.

I. 緒 論

1. 研究的 必要性

人間の 成長 發育過程에서 10~14歲를 기준하여 약 2~3年 사이에 身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兒童期와 구별되어 成人이 되어가는 過渡期를 稱하여 思春期(Puberty)라 하는데, 이 年齡에는 二次 性徵이 나타나 生殖機能을 가지는 時期로서 女兒들에게는 一般的으로 思春期 少女가 처음으로 經驗하게 되는 月經, 즉 初經(Menarche)이 기준이 된다.^{18,19,20,24)}

初經은 個人이나 民族에 있어서 性 成熟度を 測定하는 가장 좋은 尺度가 될 수 있는데, 初經의 早熟 差異는 첫째 人種, 種族, 家系와 같은 遺傳生物學的 要因, 둘째 氣候, 環境, 社會的 地位 및 生活狀態, 經濟水準等 社會-經濟的 要因, 셋째 營養, 體質, 身體發育等의 後天的 要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事實은 여러 學者들의 研究에 의해 報告된 바 있다.^{18,19,20,24)}

女性の 性 成熟度を 初經으로 기준하여 본다면 다른

民族 間에서도 같을 수 있으며, 또 같은 民族이라도 時代와 生活環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保健學的인 側面에서 대단히 重要的 保健指標로 評價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週期的인 調査를 통하여 파악할 必要가 있으며 一般的으로 初經에 미치는 影響으로 個體의 疾病狀態, 環境條件, 遺傳關係 및 健康狀態와 情緒的 要因等 諸般事項과 관련하여 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韓國 女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女性 生理에 關해 調査한 예는 약 60年前 李¹⁴⁾의 研究를 嚆矢로하여 1967年 權, 李, 朴³⁾의 研究, 1971年 김, 姜⁴⁾의 研究, 그리고 1971年 康¹⁾, 李¹³⁾ 등의 研究調査가 있으며, 이외에 學者들의 研究가 다소 있으나 學者들의 觀點에 따라 散發的으로 시도되어 졌다.

이들 調査들을 現時點에서 볼 때 10餘年前의 調査이고 최근의 우리나라 女學生을 對象으로 실시한 初經에 關한 資料는 거의 없다.

그리고, 지난 10年동안 우리나라 國民들의 社會-經濟生活이 急激히 向上되었을 뿐만 아니라 開放社會로

變化되어가는 社會 속에서 健康 및 情緒의인 成熟도가 많이 變化되었을 것으로 豫측하여 이에 따른 初經年齡의 變動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初經年齡이 過去와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 살펴 보며, 初經에 관한 學校教育現況을 파악하여 女學生들의 成長과 發育에 대한 父母 및 教師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性教育의 內容과 時期를 파악하는 한편, 체계적인 教育方案을 계획하는데 本研究는 공헌을 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初經年齡에 對한 研究者들의 報告에 의하면 美國의 경우 1939~1947年 사이에는 14歲, 1948~1952년에는 13.8歲, 1954~1960년에는 13.1歲, 1970년에는 12.5歲^{23,24,25)}로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初經年齡이 빨라지다가 1976년에는 12.8歲²⁷⁾로 밝혀짐으로서 12歲에서 큰 變動없이 安靜된 年齡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美國에서 뿐만 아니라 英國에서도 每 10년에 3~4個月씩 初經年齡이 빨라지다가 1970年代까지의 계속된 調査에 의해 美國에서와 같이 比較的 固定된 狀態에 있음을 報告하였다.²⁶⁾

우리나라 女學生의 初經年齡도 1923年 李¹⁴⁾의 報告에서 15歲로 調査된 以後 계속된 研究調査 結果 점진적으로 빨라지면서 1971年 康¹⁾의 報告에서는 13.2歲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外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初經年齡이 빨라지다가 10餘년이 지난 後인 오늘날에 와서 과거 10年前과 비슷한 水準에서 固定되어 있는지 여부는 대단히 興味있는 課題로 남아 있다.

또한, 初經은 精神 身體 醫學 분야에서도 많은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는 社會 文化的으로 初經에 對한 意識, 無意識의인 認識이 初經을 不潔시 하거나, 여러가지 因習의인 禁忌와 身體的 狀態의 變化에 의해 正常的 活動이 제한되어 一般의인 情緒表現의 軌道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恐怖, 情緒不安, 羞恥, 不快, 焦燥, 憂鬱, 緊張等 精神-神經症의인 反應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21,22)} 그리하여 初經 時의 心理的 狀態가 그후 月經때마다 再經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²²⁾ 初經에 對한 올바른 認識이 保健學의인 面에서도 重要하므로 本研究의 必要性이 더욱 強調되는 바이다.

2. 研究目的

思春期 前後의 서울 시내 女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正確한 初經年齡을 파악하고, 初經年齡 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를 分析하며, 初經 時의 心理狀態와 初經

에 關한 學校教育 現況을 調査하여 이를 기초로 學校 保健教育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이 있으며 이를 具體的으로 叙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지역의 思春期 女學生을 對象하여 최근에 이들의 初經年齡을 測定한다.

② 初經年齡 變化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經濟的 變數, 環境變數, 個人 特性變數에 따른 初經年齡의 變化를 分析한다.

③ 初經時의 心理狀態를 分析한다.

④ 初經에 對한 學校教育 現況을 調査한다.

Ⅱ. 研究 方法

1. 調査對象者 抽出 및 資料蒐集

調査 對象者는 서울 시내 4個 教育區廳* 산하 85個의 女子中學校 가운데 1次抽出單位(Primary Sampling Unit)로 4個 女子中學校를 選定하였다.

2次抽出單位(Secondary Sampling Unit)로 이들 4個 學校의 1,2,3學年에서 各 學年別로 1個班씩을 無作為 抽出(Random Sampling)하였으며, 抽出된 各 學生數는 <表 1>에서 提示된 바와 같다.

表 1. 調査對象者의 學年別 學生校

學年	學校	A學校	B學校	C學校	D學校	計
1學年		58	57	55	58	228
2學年		62	61	58	59	240
3學年		69	64	65	66	264
計		189	182	178	183	732

全體 調査對象者數는 732名이며 이들에 對한 調査는 1982年 5月 1일부터 5月 20일까지 各 調査對象學校를 研究者가 訪問하고 사전에 準備된 設問紙를 各 調査對象者에게 直接 配付하여 學生 本人이 記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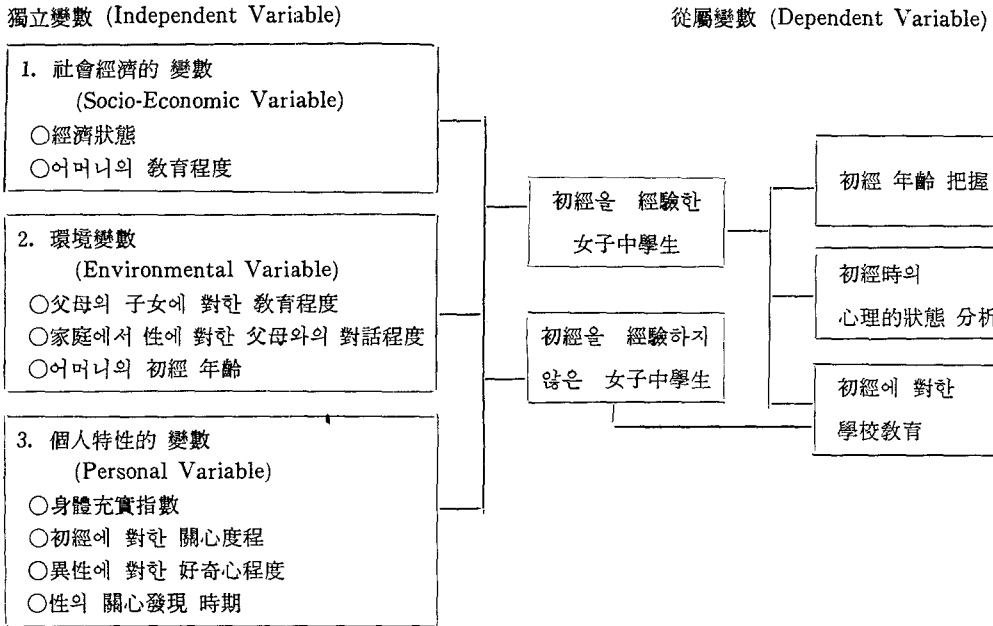
各 設問 內容의 應答率을 높이고 問題에 對한 內容을 충실히 答辯해 줄 것을 強調하기 위하여 調査直前に 調査目的과 調査內容에 對한 個人의 秘密保障에 對해서 說明하였으며 가장 信賴性 있으며 확실한 應答이 있을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資料分析

1) 分析模型과 變數의 選定

本研究는 研究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 市 女 *現在는 6個 教育區廳임.

表 2. 分析 模 型



學生의 初經年齡을 파악하고 初經의 時期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를 分析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初經을 經驗한 學生들의 初經時 心理狀態를 分析하고 이를 向後 學校保健 教育 內容에 반영할 수 있도록 構想한 것이다.

分析 model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屬變數(Dependent Variable)로 初經 年齡과 初經時의 心理狀態를 정하였으며, 從屬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推定되는 變數를 獨立變數(Independent Variable)로 選定하였다. 獨立變數의 選定은 다음 세가지의 基準에 따라 택하였는데, 첫째는 初經이 社會의 地位 및 生活狀態, 經濟 水準 等に 영향을 많이 받는다.^{18,19,20,23)}는 理論을 배경으로 하여 家庭環境 즉 經濟狀態, 어머니의 教育程度를 社會—經濟的 變數(Socio-Economic Variable)로 선택하였다.

둘째는, 初經이 人種, 種族, 家系, 氣候, 環境과 같은 遺傳的, 環境的 要因에 따라 달라진다^{20,23)}는 理論과 過去의 研究結果*에서 相互 學術的 討論의 여지가 있는 몇가지 變數, 즉 家庭에서 父母의 訓育—關心程度, 父母와의 性에 對한 對話程度, 어머니의 初經 年齡을 環境變數로 택하였다.

셋째로서는 營養, 體質, 身體發育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8,19)}는 理論에 따라 身體發育 面에서 成長—發育狀態를 나타내는 身體充實指數를 個人特殊變數로 보았으며, 특히 1979年 김⁵⁾의 研究에서 情緒的 要因은 精神年齡의 成長과 關係가 있으며 精神年齡의 成長은 初

經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情緒的인 面으로 初經에 對한 關心程度, 異性에 對한 好奇心程度, 性的 關心發現 時期等を 內容으로 택하였다. 諸 變數들이 初經에 미치는 영향은 χ^2 檢査(Chi-Square test)로 處理하였다.

III. 分析結果 및 考察

1. 調查對象者의 初經狀態

女子中學生 1, 2, 3學年을 對象으로 실시한 本 調查의 對象者 年齡別 構成은 <表 3>과 같다.

全體 調查對象人口은 732名으로 이 중 1學年이 228名, 2學年이 240名, 3學年이 264名이다.

各 學年別 年齡이 同一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對象者의 年齡別로 區分하였는데 그 分布를 보면 12歲以下(11, 12歲포함)가 17.3%, 13歲가 33.9%, 14歲가 36.6%, 15歲 以上(15, 16, 17歲포함)이 12.2%로 대부분의 學生이 13, 14歲에 分布되어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對象 人口 中에서 調查당시 이미 初經을 經驗한 學生數는 503名으로서 68.7%로 나타났다.

本 調查와 같은 學年水準의 女學生을 對象으로 한 1977年 丘²⁾의 研究에 의하면 66.3%가 初經을 經驗한

*1. 1971年 康¹⁾과 1971年 김, 강⁴⁾의 研究

2. 1969年 Zacharias²⁸⁾와 1977年 丘²⁾의 研究

表 3. 調査對象者の 年齢分析

學年	年齢	12歳以下	13 歳	14 歳	15 歳	計
1 學年		106(46.5)	94(41.2)	26(11.4)	2(0.9)	228(100.0)
2 學年		21(8.7)	142(59.2)	69(28.8)	8(3.3)	240(100.0)
3 學年		— —	12(4.5)	173(65.6)	79(29.9)	264(100.0)
計		127(17.3)	248(33.9)	268(36.6)	89(12.2)	732(100.0)

表 4. 現在 年齢別 初經經驗率

現在年齢	初經經驗		計
	初經經驗者	初經無經驗者	
12歳 以下	48(37.8)	79(62.2)	127(100.0)
13歳	154(62.1)	94(37.9)	248(100.0)
14歳	216(80.6)	52(19.4)	268(100.0)
15歳 以上	85(95.5)	4(4.5)	89(100.0)
計	503(68.7)	229(31.3)	732(100.0)

것으로 報告하고 있어 本 研究의 結果와 비슷한 傾向을 나타냈으나 1970年 유¹⁰⁾의 報告에 의하면 45.5%가 初經을 經驗하고 있다고 한 것에 比較하여 월등한 差異가 있다.

年齢別 初經 經驗率을 보면, 12歳以下の 學生은 37.8%, 13歳 學生은 62.1%, 14歳 學生은 80.6%가 初經을 經驗했으며, 15歳 以上 學生에 있어서는 95.5%가 初經을 經驗함으로써 우리나라 女學生의 95%는 15歳가 되면 初經을 經驗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71年 李¹³⁾와 1978年 金⁵⁾은 國民學校 兒童을 對象으로 하여 12歳 以下の 女學生의 初經 經驗率을 調査한 結果 各各 9.3%, 11.2%가 初經을 經驗하고 있다고 한 것과 比較할 때 本 調査에서 12歳 以下 學生이 37.8%가 初經을 經驗하고 있다는 것은 顯著한 差異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年度에 따라 初經 年齢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經濟, 文化, 生活水準의 向上과 個人의 心理의 영향에 影響을 받을 수 있다는 理論으로 보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확실히 經濟-社會生活 水準이 지난 1970年代에 비하여 월등히 向上되었고, 또 開放社會化되고 있는 現實에서 보다 자유스러운 個人活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서 初經의 年齢이 빨라진 理由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 初經 年齢

初經 經驗者의 初經 年齢分佈를 <그림 1>에서 보면, 가장 빠른 初經 年齢이 10歳이고, 가장 늦은 學生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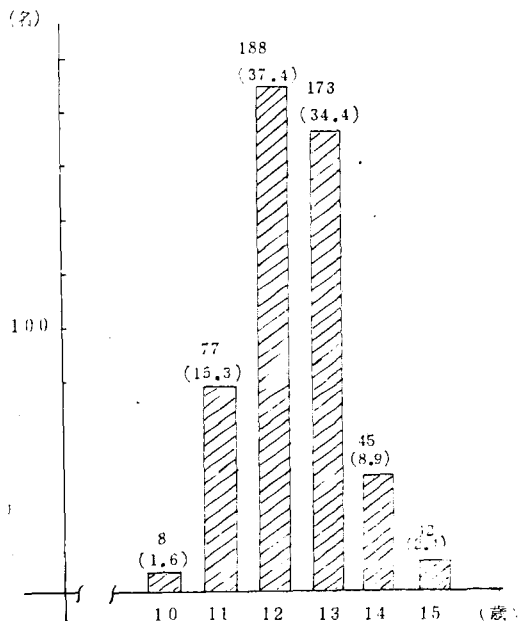


그림 1. 初經年齡 分佈圖
平均 初經年齡: 1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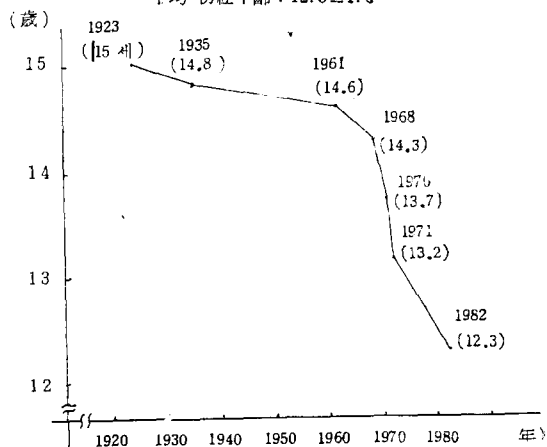


그림 2. 調査年度別 初經年齡의 變化

歲로서 10歳부터 15歳 사이에 初經 年齢이 分佈되어 있다.

本 資料에서 밝혀진 女學生의 平均 初經 年齢은 12.

3歲이다.

지금까지 初經 年齡에 對한 研究者들의 報告에 의하면 美國에서는 1939年~1947年 사이에는 14歲, 1948年~1952년에는 13.8歲, 1954年~1960년에는 13.1歲, 1970년에는 12.5歲^{23,24,25)}로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初經 年齡이 빨라지다가 1976年 12.8歲²⁷⁾ 임을 報告하여 美國의 경우 12歲에서 큰 變動없이 停止된 水準에 머물러 있음을 報告하였다.

이러한 現狀은 美國에서 뿐만 아니라 英國에서도 每 10년에 3~4個月씩 初經 年齡이 빨라지다가 1970年代까지의 계속된 調査에 의해 美國에서와 같이 固定된 狀態로 있다고 報告하였다.²⁶⁾

우리나라 女學生의 初經 平均年齡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3年 李¹⁴⁾의 報告에서 15歲, 1935年 朴⁹⁾은 14.8歲, 1961年 金⁸⁾은 14.6歲, 1968年 權, 李, 朴³⁾은 14.3歲, 그리고 1970年 광주지방 女學生을 對象으로 한 유¹¹⁾는 14歲로 各各 報告하고 있다. 또, 1970年 都市 女學生을 對象으로 한 김, 박⁶⁾은 13.7歲임을 報告하였으며, 1971年 康¹⁾은 都市地域 女性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에서 女學生의 平均 初經 年齡은 13.2歲로 밝히고 있으며, 10餘년이 지난 本 調査에서는 12.3歲로 外國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初經 年齡이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社會-文化生活의 向上과 함께 美國이나 英國에서와 비슷하게 初經 年齡이 빨라지고 있는 速度로 보아 이 水準에서 거의 停止되지 않을 까 짐작된다.

그러나 1978年 金⁵⁾이 國民學校 5,6學年을 對象으로 실시한 初經 年齡調査에서 11.3%가 初經을 經驗하여 平均 初經 年齡이 11.6歲로 報告되었으나 이 調査는 國民學校 學生 가운데 初經 經驗者만을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經驗者가 적으며, 또 早期 經驗을 經驗한 특수 集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年齡을 普遍性있게 받아 드릴 수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

다만 國民學校 學生 가운데 一部 初經 經驗을 하고 있음과 아울러 이들 集團의 平均 年齡 水準을 참고할 수 있는 資料로 제시하는 程度일 것이다.

이와같이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初經 年齡이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結果는 經濟, 社會生活水準의 向上 心理的 影響으로 女學生의 發育이 早熟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따라 父母 및 教師들은 女學生의 成長-發育에 더욱 關心을 높여야 하며, 이에 따른 初經에 對한 教育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教育의 時期도 빨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表 5.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의 初經에 關係된 變數 比較

初經에 關係된 變數	初經 經驗者	初 無 經驗者	計
1. 家庭經濟 狀態			
上	95 (18.9)	28 (12.6)	123 (16.9)
中	344 (68.4)	156 (69.5)	500 (68.8)
下	64 (12.7)	40 (17.9)	104 (14.3)
2. 어머니의 教育 水準			
無 學	27 (5.4)	7 (3.2)	34 (4.8)
國 卒	62 (12.6)	59 (26.8)	121 (16.9)
中 卒	156 (31.6)	80 (36.4)	236 (33.1)
高 卒	150 (31.6)	58 (26.4)	208 (29.1)
大 卒	99 (20.0)	16 (7.2)	115 (16.1)
3. 父母의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關心 程度			
엄격하다	175 (34.8)	64 (28.7)	239 (32.9)
보통이다	164 (32.6)	95 (42.6)	259 (35.7)
자유롭다	164 (32.6)	64 (28.7)	228 (31.4)
4.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 程度			
전혀 없다	119 (23.8)	97 (42.9)	216 (29.7)
거의 없으면	297 (59.4)	103 (45.1)	400 (55.0)
가끔한다			
자주 한다	84 (16.8)	27 (12.0)	111 (15.3)
5. 어머니의 初經 年齡			
13歲 以下	141 (28.0)	26 (11.5)	167 (22.9)
14~15歲	56 (11.1)	20 (8.8)	76 (10.4)
16~17歲	165 (32.8)	76 (33.4)	241 (33.0)
18~19歲	119 (23.7)	57 (25.1)	176 (24.1)
20歲 以上	22 (4.4)	48 (21.2)	70 (9.6)
6. 異性에 對한 好奇心			
전혀 없었다	29 (5.8)	31 (13.6)	60 (8.3)
보통 이었다	186 (37.2)	104 (45.8)	290 (39.9)
대단히 많았다	285 (57.0)	92 (40.6)	377 (51.8)
7. 初經 또는 身體變化에 對한 好奇心			
전혀 없었다	19 (3.8)	14 (6.3)	33 (4.6)
보통 이었다	142 (28.3)	59 (26.5)	201 (27.7)
대단히 많았다	341 (67.9)	150 (67.2)	491 (67.7)
8. 性에 對한 關心 發現 時期			
國校 4學年 以前	4 (0.8)	1 (0.4)	5 (0.7)
國校 5~6學年	178 (36.3)	66 (2.9)	244 (33.9)
中 1~2學年	294 (60.0)	112 (48.9)	406 (56.5)
中 3學年 以後	14 (2.9)	50 (21.8)	64 (8.9)
計	503(100.0)	229(100.0)	732(100.0)

3. 初經 經驗學生과 無經驗學生의 初經에 關係된 變數 比較

初經에 關係된 것으로 推論되는 選擇變數들을 中心으로 初經 經驗者 503名과 初經 無經驗者 229名간의 特性을 比較하였다.

<表 5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人이 진술한 家庭經濟 狀態를 보면, 全體 調查對象者의 生活水準은 대체로 中流의 生活에 屬하고 있어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上流生活에 屬하고 있는 群이 16.9% 下流生活에 屬하고 있는 群이 14.3% 이었다. 初經 經驗者중 18.9%가 上流生活에 屬하고 있는데 반해 無經驗者는 12.6%가 上流生活에 屬하고 있어 初經 經驗者는 無經驗者보다 生活水準이 높다. 經濟生活 水準에 따른 初經 經驗者의 構成은 不流生活者 集團에서도 앞서 살펴본 上流 生活集團에서의 結果와 같은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즉, 初經 經驗者중 12.7%가 下流生活인데 비해 無經驗者의 下流生活은 17.9%로 無經驗者 生活水準이 初經 經驗者보다 낮아 生活水準이 初經의 時期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중의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 5의 2항>에서와 같이 全體 調查 對象者의 어머니의 教育水準을 보면, 中卒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高卒 29.1%, 國卒 16.9%, 大卒 16.1%, 無學이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1981年 李¹¹⁾의 調查에서는 中卒이 34.4%로 가장 높고, 高卒, 國卒, 大卒, 無學의 순으로 나타나 本 調查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울시內 女學生의 어머니는 대체로 中學校 以上の 教育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의 어머니 教育水準을 比較하여 볼 때 初經 經驗者에 있어서는 어머니 教育水準이 高卒 30.4%, 大卒 20.0%인데 비해 無經驗者에 있어선 高卒 26.4%, 大卒 7.2%로 兩 集團에 약간의 差異를 보인다. 初經 經驗者의 어머니 教育이 中卒 以下の 水準分布에서 살펴보면, 國卒이 12.6%, 中卒이 31.6%인데 비해 無經驗者에서는 國卒이 26.8%, 中卒이 36.4%로 앞서 어머니 教育이 높은 集團에서 나타난 逆의 現狀이 보인다.

따라서 이는 어머니의 教育과 經濟水準과 相互關係를 가지면서 初經時期와는 間接적인 關係를 가져 家庭經濟 狀態와 같이 어머니 教育水準이 높은 集團에서 初經 經驗이 빠른 현상을 나타냈을 것으로 思料된다.

<表 5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父母의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心程度는 “보통이다”가 35.7%, “엄격하다”가 32.9%, “자유롭다”가 31.4%의 순으로 나타

났으나 뚜렷한 差異는 볼 수 없다.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 間의 父母가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關心程度의 差異를 比較해 볼 때, 初經 經驗者에 있어선 “엄격하다”가 34.8%, “보통이다” “자유롭다”가 각각 32.6%로 나타났으며 無經驗者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35.7%, “엄격하다”가 32.9%, “자유롭다”가 31.4%로 兩群에는 별다른 差異가 없다. 1968年 權, 李, 朴³⁾, 1971年 金, 姜,⁴⁾ 1971年 李¹²⁾ 등에 의하면 家庭教育程度가 무관심하거나 자유로울수록 初經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1971年 康¹⁾은 本 調查와 같이 별다른 差異가 없다고 報告하였다.

따라서 子女에 대한 父母의 訓育 및 生活의 關心度는 初經時期에 뚜렷한 影響을 나타낼 만큼 강력한 變數로서 認定받을 수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表 5의 4항>에서는 父母와 調查對象者간의 性에 對한 對話程度를 나타낸 것이다.

全體 調查對象者중 “기회있으면 가끔 이야기 한다”가 5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가 29.7%, “자주 이야기 한다”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父母와 性에 對해 이야기를 하는 學生이 70.3%로 家庭에서 性에 對한 對話는 開放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에 있어서,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程度를 比較해 볼 때 “자주 이야기 한다”가 初經 經驗者에게는 16.8%, 無經驗者에서는 12.0%, “가끔 이야기 한다”가 初經 經驗者에서는 59.4%, 無經驗者에서는 45.1%로 初經 經驗者에 있어서 性에 대한 對話程度가 無經驗者에 비해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初經 經驗者 群에서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가 빈번한 것은 家庭에서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程度가 初經 年齡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로 作用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或은 初經을 經驗하게 된 動機로 因하여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現狀이 아닌가 思料된다.

다음 子女의 初經時期는 그들 어머니의 初經時期와 상관하고 있다.^{2,28)}는 遺傳的인 측면에서 어머니의 初經 年齡과 兩 集團을 比較하였다.

<表 5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調查對象者의 어머니가 初經을 經驗한 年齡分布를 보면 33.0%가 16~17歲로 가장 많고 24.1%가 18~19歲, 13歲 以下가 22.9%, 14~15歲가 10.4%, 20歲 以上이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調查對象者들의 어머니가 初經을 經驗했을 비슷한 時期에 수행된 1961年 金⁸⁾의 調查에서 밝힌 14.6歲 보다는 調查對象者 어머니의 初經 年齡은 낮다.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와의 比較에 있어서 어머니

初經年齡을 보면 初經經驗者의 28.0%가 어머니의 初經年齡이 상당히 빠른 13歲인데 비해 無經驗者는 11.5%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初經年齡 14~15歲에서도 初經經驗者가 11.1%, 無經驗者가 8.8%로 差異가 난다.

어머니의 初經年齡이 비교적 높은 16~17歲, 18~19歲에서는 初經經驗者는 各各 32.8%, 23.7%이며, 無經驗者에 있어서는 各各 33.4%, 25.1%로 初經經驗者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初經年齡이 아주 늦은 20歲 以上에 있어서는 初經經驗者는 4.4%, 初經無經驗者는 21.2%로 差異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初經年齡이 子女의 初經經驗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중의 하나일 것으로 思料된다.

다음 個人의 情緒的인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表 5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調查 對象者 중 “異性에 對한 好奇心이 대단히 많았다”가 51.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었다”가 39.9%, “好奇心이 전혀 없었다”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女學生들이 經濟, 文化, 生活水準의 向上과 精神年齡의 發達, 開放된 性知識의 習得等 比較的 自由스러운 社會-文化속에서 異性에 對한 關心度가 높다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正常的인 精神健康 發達過程으로 認定할 수 있으며, 또 이들에 對한 異性에 對한 純潔教育 또는 性教育의 要求도가 必要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初經經驗者와 無經驗者의 比較에서 初經經驗者중 57%가 好奇心이 대단히 많았는데 비해 初經無經驗者는 40.6%로 經驗者보다 無經驗者 群이 異性에 對한 關心度가 떨어져 있다. 兩集團이 느끼는 異性에 對한 關心度는 好奇心이 없다는 側面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즉, 初經經驗者중 5.8%만이 전혀 없는데 비해 無經驗者는 13.6%로 無經驗者에서 보다 높다. 이는 異性에 對한 好奇心이 初經經驗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또는 初經을 이미 經驗할 만큼 身體的으로 다른 學生에 比較하여 成熟함으로써 自然히 異性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졌는지 여부에 대한 因果關係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表 5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經 또는 身體變化에 對한 好奇心도 異性에 對한 好奇心과 마찬가지로 初經經驗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本研究의 結果는 이에 일치하고 있다.

<表 5의 8항>과 같이 性에 對한 關心 發現時期를 보면, 全體 調查對象者중 56.5%가 中學校 1~2學年부터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고, 國校 5~6學年이 33.9%, 中學校 3學年 以後가 8.6%, 國校 4學年 以上가 0.7%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실상 순위에 關係없이 國校 5~

6學年에서 性에 對한 關心이 있었다는 百分率이 相當水準을 차지하고 있음에는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1969年 金⁷⁾의 報告에서 性에 對한 關心 發現時期가 中 1~2學年때 18.8%, 中 3學年 以後가 54.8%임에 比較하여 本研究 結果로 볼 때 현저히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初經經驗者와 無經驗者의 比較에 있어서, 初經經驗者중 37.1%가 國校 6學年 以前에 關心을 갖어 兩群간의 월등한 差異를 보였다.

또한 初經經驗者 中에는 2.9%가 中學校 3學年 以後에 性에 對한 關心을 갖는 반면, 無經驗者 中에는 21.8%가 關心을 보여, 이는 性에 對한 關心發現時期가 初經年齡과 相關關係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以上으로 初經經驗者와 無經驗者의 初經에 關係된 變數比較結果, 家庭經濟狀態, 어머니의 教育水準,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程度, 어머니의 初經年齡, 異性에 對한 好奇心, 初經 또는 身體變化에 對한 好奇心 性에 對한 關心發現時期等이 初經經驗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일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이들 變數들이 과연 初經年齡을 決定하는데 어느정도의 影響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原因-結果論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點에 對한 구체적인 分析을 시도하기 위하여 初經年齡과 關係變數간의 相關性을 검토하기로 했다.

4. 諸 變數와 初經年齡과의 關係

初經年齡의 早熟이 어떤 變數의 影響을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初經經驗者 503名을 對象으로 하여 初經年齡에 影響을 미치리라고 思料되는 變數들을 選擇하여 初經年齡과의 關係를 分析하였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家庭經濟 狀態別 初經年齡

家庭經濟 狀態와 初經年齡과의 關係를 알기 위해 調查한 結果는 <表 6>과 같다.

平均 初經年齡보다 빠른 10~11歲群에선 그들의 家

表 6. 家庭經濟狀態別 初經年齡

初經年齡	家庭經濟		
	上	中	下
10—11歲	30(31.6)	51(14.8)	9(14.0)
12—13歲	53(55.8)	252(73.3)	41(64.1)
14—15歲	12(12.6)	41(11.9)	14(21.9)
計	95(100.0)	344(100.0)	64(100.0)

p<0.01

表 7. 어머니의 教育水準別 初經 年齡

初經年齡	教育水準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10—11歲	2(7.4)	4(6.5)	23(14.7)	33(22.0)	15(15.2)
12—13歲	19(70.4)	42(67.7)	112(71.8)	106(70.7)	73(73.7)
14—15歲	6(22.2)	16(25.8)	21(13.5)	11(7.3)	11(11.1)
計	27(100.0)	62(100.0)	156(100.0)	150(100.0)	99(100.0)

p<0.01

庭經濟水準이 上流生活에 속하고 있다고 응답한 學生이 31.6%, 中流生活이 14.8% 그리고 下流生活이 14.0%로서 上流生活에 속한 學生이 中流 또는 下流에 속한 學生보다 初經 年齡이 빠른 傾向을 보인다. 한편,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群에선 上流生活이 12.6%, 下流生活이 11.9%, 로서 初經이 21.9%로서 初經이 늦은 年齡 集團에서 經濟生活이 낮은 學生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狀에서 家庭經濟狀態와 初經 年齡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1971年 康¹⁾, 1971年 김, 강⁴⁾의 研究報告에서도 本 調査와 같은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5年 Sigh²⁴⁾, 1969年 Zacharias²⁵⁾의 研究에서도 좋은 環境의 少女들은 環境이 나쁜 社會의 少女들보다 初經이 일찍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經濟, 文化의 發達에 따라 女學生들이 早熟해지고 있음을 뜻하므로 이에 따른 教育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의 教育水準別 初經 年齡

어머니의 教育水準과 初經 年齡과의 關係를 알기 위해 調査한 結果는 <表 7>과 같다.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群에선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高卒이 가장 높아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大卒 15.2%, 中卒 14.7%, 無學 17.4%, 國卒 6.5%의 순이다. 그리하여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群에서 高等教育 以上の 教育배경의 어머니를 가진 學生이 32.7%로 높은 반면,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群에서는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國民學校 以下の 教育을 받은 率이 48.0%로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子女의 初經 年齡이 빠르고,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낮으면 子女의 初經 年齡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1971年 김, 강⁴⁾, 1973年 조⁵⁾의 研究에서도 本 調査와 같은 樣相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教育程度가 子女의 初經年齡에 직접적인 영향 變數의 役割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家庭經濟, 文化, 生活環境水準과 密接

表 8. 父母의 子女에 대한 訓育 및 生活關心程度別 初經 年齡

初經年齡	訓育關心程度 엄격하다	보통이다	자유롭다
10—11歲	25(14.3)	31(18.9)	28(17.1)
12—13歲	130(74.3)	115(70.1)	116(71.2)
14—15歲	20(11.4)	18(11.0)	19(11.7)
計	175(100.0)	164(100.0)	163(100.0)

p<0.05

한 關係를 가지므로 子女의 初經年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3) 父母의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關心度別 初經 年齡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에서는 父母의 訓育 및 生活關心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率이 18.9%, “자유롭다”라고 응답한 率이 17.1%, “엄격하다”가 14.3%이며,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에서는 “자유롭다”가 11.7%, “엄격하다”가 11.4%, “보통이다”가 11.0%로써 初經 年齡의 早熟을 說明할 수 없을 程度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 1968年 權, 李, 朴³⁾, 1971年 김, 강⁴⁾, 1971年 李¹³⁾ 등에 의하면 家庭訓育程度가 無關心하거나 자유로울수록 初經 年齡이 빠르다고 하였으나, 1971年 康¹⁾은 本 調査와 같이 별다른 差異가 없다고 報告하였다.

表 9. 性에 對한 父母와의 對話程度別 初經 年齡

初經年齡	對話程度 전혀없다	기회있으면 가끔한다	자주한다
10—11歲	14(11.8)	52(17.5)	17(20.2)
12—13歲	89(74.8)	208(70.0)	63(75.0)
14—15歲	16(13.4)	37(12.5)	4(4.8)
計	119(100.0)	297(100.0)	84(100.0)

p<0.05

表 10. 어머니의 初經 年齡에 따른 子女의 初經 年齡

學生의 初經年齡	어머니의 初經年齡	13歲以下	14—15歲	16—17歲	18—19歲	20歲以上
10—11歲		31(22.0)	15(26.8)	27(16.4)	11(9.2)	1(4.5)
12—13歲		98(69.5)	37(66.1)	128(77.5)	81(68.1)	17(77.3)
14—15歲		12(8.5)	4(7.1)	10(6.1)	27(22.7)	4(18.2)
計		141(100.0)	56(100.0)	165(100.0)	119(100.0)	22(100.0)

p < 0.01

앞에서 初經 經驗者와 無經驗者의 變數 比較에서도 父母의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關心程度는 別다른 差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初經 經驗이나 年齡에 이 變數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無關하리라고 思料된다.

4) 性에 對한 父母와의 對話程度別 初經 年齡

性에 對한 父母와의 對話程度와 初經 年齡과의 關係를 알기위해 分析한 結果는 <表 9>와 같다.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 群에서는 父母와 性에 對한 對話를 “자주한다”가 20.2%로 가장 높고, “기회있으면 가끔한다”가 17.5%, “전혀없다”가 11.8%의 순이다.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 群에서는 “전혀없다”가 13.4%로 가장 높고, “기회있으면 가끔한다”가 12.5% “자주한다”가 4.8%의 순이다. 이러한 現狀에서 初經 年齡이 빠른 경우에는 家庭에서 性에 對한 開放이되어 있는 狀態, 즉 “자주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初經 年齡이 늦은 경우에는 “자주한다”가 가장 낮은 率을 나타내는 반면에 家庭에서 性에 對한 閉鎖 狀態인 “전혀없다”가 初經 年齡이 빠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率을 보였고, 初經 年齡이 늦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率을 보여 家庭에서 性에 對한 開放狀態인 父母와의 性에 對한 對話程度는 初經 年齡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父母와의 性에 對한 對話時期가 子女의 初經 前後, 어느때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本 調査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아 家庭에서의 性에 對한 開放性이 子女의 性的 成熟度에 주는 影響을 精確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부언코져 한다.

父母와의 性에 對한 對話는 子女의 情緒發達, 性的 早熟에 많은 影響을 줄 것으로 가정할 때, 家庭에서의 性教育의 重要性을 認識시켜야 할 새로운 教育課題가 地域社會 中心으로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어머니의 初經 年齡에 따른 子女의 初經 年齡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初經 年齡이 10~11歲

群에서는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14~15歲인 경우가 26.8%로 가장 높고, 13歲 以下가 22.0%, 16~17歲 16.4%, 18~19歲 9.2%의 순이며 20歲 以上이 4.5%로 가장 낮다.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에서는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18~19歲가 22.7%로 가장 높고, 20歲 以上이 18.2%, 13歲 以下, 14~15歲, 16~17歲의 순이다.

어머니의 初經 年齡으로 상당히 빠른 13歲 以下에 初經을 한 어머니를 가진 學生이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에 初經을 한 率이 22.0%인데 비해, 어머니의 初經 年齡으로 상당히 늦은 20歲 以上에 初經을 한 어머니를 가진 學生이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에 初經을 한 率은 4.5%로 많은 差異를 가진다.

子女의 初經 年齡과 어머니의 初經 年齡間의 關係에서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빠르면 子女의 初經 年齡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初經 年齡으로 상당히 빠른 13歲 以下에 初經을 한 어머니를 가진 學生이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에 初經을 한 率은 8.5%인데 비해, 어머니의 初經 年齡으로 상당히 늦은 20歲 以上에 初經한 어머니를 가진 學生이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에 初經을 한 率은 18.2%로 역시 많은 差異를 가진다.

이 또한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늦으면 子女의 初經 年齡이 늦어지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1969年 Zacharias²⁸⁾의 報告에서도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빠르면 子女도 빠르다고 하여 本 調査 結果와 같았으며 1977年 丘²⁾의 報告에서는 子女의 初經 年齡은 어머니보다 4~5個月 程度 빠르다고 하여 어머니의 初經 年齡과 子女의 初經 年齡 사이에는 相關關係를 나타내었다.

6) 身體充實指數에 따른 初經 年齡

本 研究에서 사용한 身體充實指數는 1908年 Röhror氏가 發表한 것으로 다음의 公式에 의하여 產出한 것이다.¹⁰⁾

表 11. 身體充實指數別 初經年齡

初經年齡	身體充實指數狀態	充實指數A, B (마른편이다)	充實指數C (보통이다)	充實指數D, E (뚱뚱하다)
10—11歲		13(10.0)	39(16.0)	30(26.8)
12—13歲		92(70.8)	177(72.5)	78(69.6)
14—15歲		25(19.2)	28(11.5)	4(3.6)
計		130(100.0)	244(100.0)	112(100.0)

p < 0.01

$$\text{身體充實指數} = \frac{\text{몸무게(g)}}{(\text{키(cm)})^3} \times 100^2$$

이指數는 키를 한 변으로 하는立方體 중에서 몸무게가 차지하는比率를 나타낸 것으로 骨格, 筋肉, 內臟等的 充實性과 營養狀態를 종합적으로 表示한 것이다.

指數의 解析의 불편점을 덜기 위해 正常分布 曲線의 統計理論을 適用하여 A, B, C, D, E의 5段階 級數를 指數와 並用시켜 指數의 의미를 補完하였다.

여기에서 “C”는 身體充實度가 보통인 標準狀態를 의미하고, “A”는 아주 마른편, “B”는 마른편 임을 의미하며, “D”는 뚱뚱한편, “E”는 아주 뚱뚱한 편을 各 各 의미한다.¹⁰⁾

身體充實指數 狀態와 初經 年齡 사이의 關係를 調査한 結果는 <表 11>과 같다.

初經 年齡이 빠른 10~11歲에서는 身體充實指數에서 “D, E”에 해당하는 “뚱뚱하다”가 26.8%로 가장 높고, “C”에 해당하는 “보통이다”가 16.0%, “A, B”에 해당하는 “마른편이다”가 10.0%에 各 各 分布하고 있다.

初經 年齡이 늦은 14~15歲에서는 “마른편이다”가 19.2%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11.5%, “뚱뚱하다”가 3.6%의 순이다. 이는 뚱뚱한 學生이 初經이 빠른

경향이 있고, 마른편인 學生이 初經이 늦은 경향이 있어 身體充實指數가 初經 年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思料된다. 1975年 Johnston²⁵⁾은 初經과 體重과의 關係를 研究한 結果 體格이 큰 사람과 皮下脂肪이 잘 發達된 사람이 初經이 빠르다고 하였고, 1969年 Zacharias²⁸⁾는 健康狀態가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라 하며 肥滿症(Obesity)이 있는 사람의 10~30%에서 標準보다 早期出現한다고 하였다.

또한 身體의 條件에 있어 身體缺陷, 특히 內分泌의 異常이 있는 疾病의 경우엔 현저하게 늦은 傾向을 보인다 다고 하였으나 本 調査에서는 이러한 疾病을 가진 學生이 極히 小數이고 세밀한 調査成績이 되지 않아 本 表 作成에서 除外시켰다.

5. 初經時의 心理狀態

女性에 있어서 初經은 思春期의 가장 重要한 生理的 變化이며 性的 成熟의 表現으로 최초로 生殖器 出血은 다양한 心理的 變化를 일으키며 月經의 心理學(Psychology of menstruation)이라는 범주를 생각할 정도로 特異한 問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英國이나 美國의 젊은 女性 中에서 1/3이 月經 前期 疼痛, 腰痛, 頭痛, 情緒의 不安, 緊張等을 보이며, 그 中 10% 程度는 日常生活에 障礙를 받을 정도로 심한 症勢를 호소한다고 하였으며 初經이 女性들이 經驗하는 큰 情緒의 충격으로서 그 당시의 情緒狀態가 月經 때마다 再經驗하게 되는데 女性 性的 不安(Denial of femininity)의 無意識의인 기도가 挫折됨에 따라 抑壓해 오던 罪責感, 羞恥, 劣等感이 再現되게 된다²²⁾고 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여러 研究의 結果에서 初經 또는 月經이 情緒 및 精神 保健의인 側面과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本 研究에서도 이러한 點

表 12. 初經時의 心理狀態

心理的狀態	評 點	7	6	5	4	3	2	1	計	平均評點	順 位
羞 恥 感		103	104	47	17	18	10	8	307	5.63	1
恐 怖 感		95	53	39	30	21	11	7	256	5.43	2
情 緒 不 安 定		61	108	75	37	16	12	5	314	5.33	3
滿 足 感		88	22	17	21	12	6	19	185	5.32	4
不 快 感		81	77	85	50	18	12	4	327	5.31	5
우 울 증		21	19	20	27	21	20	13	141	4.15	6
行 動 의 過 激		9	27	34	44	19	20	13	166	4.10	7
劣 等 感		2	9	18	15	16	23	25	108	3.12	8
盜 癡 症		—	—	1	—	1	2	—	4	2.98	9
罪 責 感		3	1	9	12	18	20	21	84	2.80	10

表 13. 初經 年齡에 따른 初經時 主要 心理狀態

初經年齡	心理的狀態	羞 恥 感	恐 怖 感	情 緒 不 安 定	滿 足 感	不 快 感	計
11歲以下		17(23.0)	21(28.4)	11(14.9)	12(16.1)	13(17.6)	74(100.0)
12歲		41(26.6)	37(24.0)	25(16.3)	21(13.6)	30(19.5)	154(100.0)
13歲		40(27.2)	25(17.0)	20(13.6)	36(23.4)	26(16.8)	147(100.0)
14歲以上		5(9.8)	12(23.5)	5(9.8)	19(37.3)	10(19.6)	51(100.0)

表 14. 月經時의 心理狀態

心理的狀態	評 點	7	6	5	4	3	2	1	計	平均評點	順 位
情 緒 不 安 定		108	69	50	16	5	6	2	256	5.91	1
不 快 感		89	64	44	24	8	11	3	243	5.65	2
羞 恥 感		39	67	35	12	7	4	8	172	5.44	3
滿 足 感		41	13	12	7	10	4	9	96	5.21	4
恐 怖 感		45	23	16	21	15	8	4	132	4.89	5
行 動 的 過 激		24	38	22	17	9	11	9	130	4.86	6
우 울 증		26	12	13	15	14	9	11	100	4.50	7
盜 癲 症		—	1	—	1	—	1	—	3	3.97	8
劣 等 感		3	15	13	13	11	12	15	82	3.66	9
罪 責 感		4	2	9	6	8	12	10	51	3.28	10

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女學生들의 初經時와 月經時의 心理狀態를 알아보고저 하였다.

1) 初經時의 心理狀態

初經 經驗者를 對象으로 初經時에 나타날 수 있는 心理狀態 10個 즉, 滿足感, 恐怖感, 羞恥感, 情緒不安定, 不快感, 罪責感, 劣等感, 行動의 過激, 우울증, 盜癲症 등에서 初經時 느꼈던 心理狀態를 모두 골라 그 중 가장 영향이 많았던 순서대로 7個를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영향이 많았던 1순위는 7點, 2순위는 6點, 3순위는 5點, 4순위는 4點, 5순위는 3點, 6순위는 2點, 7순위는 1點으로 各各 評點을 주어 그 平均評點을 내어 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調查 對象者 中 68.2%에서 1個 以上の 自覺症勢를 느꼈는데 女學生이 初經時에 느끼는 心理狀態는 羞恥感이 評點 5.63으로 가장 크고, 恐怖感, 情緒不安定, 滿足感, 不快感 등이 評點 5 以上으로 영향이 컸고, 우울증, 行動의 過激, 劣等感 등도 나타났으며 罪責感이나 盜癲症은 小數이지만 女學生들이 初經時에 느꼈다고 나타났다.

1971年 康¹⁾은 女學生에게서 19.5%가 心理的 自覺症勢를 나타냈는데 그 중 羞恥感, 恐怖感이 많았으며, 1971年 김, 강⁴⁾은 42.6%에서 神經症勢를 느꼈다고 한

것으로 本 調查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心理狀態중 初經時 많은 영향을 주었던 心理狀態를 우선 順位에 따라 1位에서 5位까지 5가지 主要 心理 狀態를 選擇하여 初經 年齡과의 關係를 分析했다. <表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平均 初經 年齡보다 빠른 12歲 以下에서는 羞恥感 49.6%, 恐怖感 52.4%, 情緒不安定 31.2%, 滿足感 29.7%, 不快感 37.1%인데 비해 平均 初經 年齡보다 늦은 13歲 以上에서는 羞恥感 37.0%, 恐怖感 40.5%, 情緒不安定 23.4%, 滿足感 60.7%, 不快感 36.4%로 나타났다.

羞恥感, 恐怖感, 情緒不安定, 不快感은 初經 年齡이 빠른 층에서 많이 나타난 반면, 滿足感만이 初經 年齡이 늦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로 인해 年齡이 어린 女學生들의 初經에 對한 知識狀態, 즉 教育의 不足을 느낄 수 있으므로 初經에 對한 早期教育의 必要性이 學校 또는 家庭에서 要求된다.

2) 初經時와 月經時의 心理狀態 比較

初經을 經驗한 후 週期的으로 月經을 하는 學生에 對해 初經時의 心理狀態를 調查한 方法과 같이 心理狀態 10個 中에서 7個를 골라 그 중 가장 영향이 많았던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여 初經時의 心理狀態分析과 같이 各各 評點을 주어 큰 순서에 따라 우선 順位를 정하였다.

表 15. 初經에 對한 情報 習得 出處

情報習得出處	7	6	5	4	3	2	1	計	平均評點	順位
學校先生님	213	131	60	44	20	16	—	484	5.88	1
어머니 또는 家族	118	132	92	51	40	28	2	463	5.31	2
親 舊	81	121	136	51	35	20	1	445	5.23	3
冊이나 雜誌	40	60	85	128	87	30	1	431	4.29	4
自己經驗	37	32	60	87	87	119	9	431	3.73	5
映畫, TV, Radio	10	18	48	73	110	89	4	352	3.47	6
其 他	2	2	2	5	3	9	21	44	2.35	7

表 16. 初經時 問題點 解決 相對者

解決相對者	6	5	4	3	2	1	計	平均評點	順位
어머니 또는 家族	267	75	44	38	13	2	439	6.02	1
冊이나 雜誌	28	97	837	73	17	2	354	4.79	2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한다	101	60	46	67	66	8	348	4.77	3
親 舊	83	171	80	44	16	5	399	4.34	4
學校先生님	3	34	42	53	113	14	259	3.34	5
其 他	5	5	6	8	14	42	80	2.52	6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 調査 對象者 中 75.3%에서 1個 以上の 自覺症勢를 느꼈는데 月經時 느끼는 心理狀態는 情緒不安定이 評點 5.91로 가장 높고 不快感, 羞恥感, 滿足感 등이 評點 5 以上으로 영향이 컸고 恐怖感, 行動의 過激, 우울증 등이 나타났으며, 小數 이지만 盜癖症, 罪責感 劣等感 등이 月經時 心理狀態로 女學生에게서 나타났다.

初經時와 月經時의 心理狀態를 比較해 보면 評點 5 以上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心理狀態는 初經時에는 羞恥感, 恐怖感, 情緒不安定, 滿足感, 不快感이었고, 月經時에는 情緒不安定, 不快感, 滿足感이다. 우선 順位の 差異가 약간 있으나 心理狀態 種類에는 變化가 없어 初經時의 心理狀態가 月經때마다 再經驗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Helene Dentsch²²⁾가 發表한 內容, 즉 “女性에서는 初經이 그들이 經驗하는 큰 情緒의 충격으로서 그 당시의 情緒狀態가 月經때마다 再經絲하게 된다”고 한 것과 一致를 보여 初經時의 心理狀態와 月經時의 心理狀態에는 相互關聯이 있다고 본다.

6. 初經에 對한 學校教育의 現況

女學生들이 初經에 對한 知識 習得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 그 중 영향이 많았던 順位대로 나열하도록 하여 順位에 따라 評點을 주어 그 平均評點을 내어 큰 순서에 따라 우선 順位를 정하였다.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學生이 初經에 對한 知識習得은 學校에서 先生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評點 5.8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어머니 또는 家族, 親舊가 비교적 높고 그 외에 冊이나 雜誌, 自己經驗, 映畫, TV, Radio의 순으로 나타났다.

1971年 康¹⁾의 報告에서도 學校 教育에서 知識 習得率이 35.7%로 가장 높다고 한 것으로 보아 初經에 對한 教育이 대부분 學校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女學生이 初經時에 생긴 問題點 解決을 위해 議論한 相對는 어머니 또는 家族이 評點 6.02로 가장 높고, 冊이나 雜誌,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한다. 親舊, 先生님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또는 가족식구가 있는 家庭에서의 教育의 重要性을 말할 뿐만 아니라, 家庭에서의 初經에 對한 態度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初經에 對한 知識習得에서는 下位를 차지하던 책이나 雜誌, 스스로 처리하는 方法 등이 問題解決에 있어서는 上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처리하는 學生이 많다는 것은 初經에 對한 올바른 認識의 周知가 重要함을 뜻한다.

더우기 初經에 對한 知識習得의 대부분이 學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問題點 解決을 선생님에게 議論한 學生은 小數로써 가장 낮은 率을 보였다는 점이

表 17. 初經에 對한 學習時期, 科目 및 理解程度

1. 처음 學習時期		2. 學習科目		3. 學習後 理解程度	
國校 4學年	28(4.0)	特別活動	325(46.0)	전혀모르다	62(8.9)
國校 5學年	128(18.2)	家 政	236(33.4)	들은적이 있으나 모른다	231(32.9)
國校 6學年	304(43.2)	體 育	117(16.5)	조금 안다	249(35.4)
中 學 校	243(34.6)	科 學	29(4.1)	잘 알고 있다	160(22.8)
計	703(100.0)	計	707(100.0)	計	702(100.0)

바로 學校教育의 問題點이라 할 수 있다.

初經에 對한 學校教育現況중 學習時期, 科目, 理解程度를 보면 <表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初經에 對한 처음 學習時期는 國校 6學年이 43.2%로 가장 높고, 中學校 34.6%, 國校 5學年이 18.2%, 國校 4學年이 4.0%의 순이다.

本 調査의 初經 年齡과 比較해 볼 때 初經에 對한 學習은 적당한 時期에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初經에 對한 學習科目은 特別活動이 46.0%로 가장 높고, 家政, 體育, 科學의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 保健教育의 教育過程 狀態를 나타내는 것으로 國民學校 教育過程에서는 初經에 關한 教育內容이 전혀 없으며 必要時에 學生을 모아놓고 담임教師나 기타 女教師가 자유의사에 따라 소극적으로 施行하고 있으며, 中學校에서는 一定한 學習科目이 없이 家政科, 體育科, 生物科에서 附隨의으로 약간씩 取扱하고 있다.

學習後 理解程度를 보면 “조금안다”가 35.4%로 가장 높고, “들은적이 있으나 모른다”가 32.9%, “잘 알고 있다”가 22.8%, “전혀 모른다”가 8.9%의 순으로 學校教育의 不實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定着한 教育目標 아래 一定한 教育過程을 樹立하여 所定の 教育과 訓練을 쌓은 教師에 의하여 學校教育을 施行하여 思春期에 처하는 女學生들이 初經 및 女性生理에 對한 無知 및 歪曲된 知識을 解消하도록 함이 現時點에서 解決되어야 할 學校教育의 問題點이며 課題이다.

Ⅳ. 結 論

서울市內 女子中學生 732名을 對象으로 1982年 5月 1일부터 5月 20日까지 사전에 準備된 設問紙로써 初經 年齡 및 初經時 心理狀態를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調査 對象者의 初經狀態를 보면, 初經을 經驗한 學生數는 503名으로 68.7%로 나타났다. 年齡別 初經 經驗率은 12歲 以下의 群에서는 37.8%, 13歲에서는

62.1%, 14歲에서는 80.6%, 15歲 以上의 群에서는 95.5%가 나타났다.

2. 初經 經驗者의 初經 年齡分布는 12歲가 37.4%로 가장 많고, 13歲가 34.4% 11歲가 15.3%, 14歲 8.9%의 順이다.

平均 初經 年齡은 12.3歲이다.

3. 各 變數別로 初經 年齡에 미치는 영향程度를 보면

1) 家庭 經濟狀態別 初經 年齡은 上流生活에 속한 學生이 中流나 下流에 속한 學生보다 初經 年齡이 빠른 傾向을 보여 初經 年齡은 家庭 經濟狀態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2) 어머니의 教育 水準別 初經 年齡은 어머니의 教育程度가 子女의 初經 年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變數라기 보다 어머니의 教育水準이 家庭經濟, 文化, 生活水準과 關係를 가지므로써 子女의 初經 年齡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思料된다.

3) 父母의 子女에 對한 訓育 및 生活關心 程度別 初經 年齡은 初經 經驗이나 年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思料된다.

4) 家庭에서 性에 對한 開放 狀態인 父母와의 性에 대한 對話程度는 初經 年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思料된다.

5) 어머니의 初經 年齡에 따른 子女의 初經 年齡은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빠르면 子女의 初經 年齡이 빠르고, 어머니의 初經 年齡이 느리면 子女의 初經 年齡이 늦어 어머니의 初經 年齡과 子女의 初經 年齡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6) 身體充實指數別 初經 年齡은 身體充實指數 D, E, 즉 “중중하다”에 속하는 學生이 初經이 빠른 傾向이 있고, 身體充實指數 A, B 즉 “마른편이다”에 속하는 學生이 初經이 늦는 傾向이 있어 身體充實指數가 初經 年齡에 영향을 미친다고 思料된다.

5. 初經時의 心理狀態는 全體 調査對象 중 68.2%에서 1個以上의 自覺症勢를 느꼈으며, 羞恥感이 評點 5.63으로 가장 크고 恐怖感, 情緒不安定, 滿足感, 不快感, 우울증, 行動의 過激, 劣等感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으며 罪責感이나 盜癖症은 小數이지만 女學生들이 初經時에 느꼈다고 나타났다.

1) 初經 年齡에 따른 初經時 主要 心理狀態 5가지를 보면, 羞恥感, 恐怖感, 情緒不安定, 不快感은 初經 年齡이 빠른 층에서 많이 나타난 반면, 滿足感은 初經 年齡이 늦은 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2) 初經時와 月經時의 心理狀態를 比較해 보면, 그 느끼는 程度에는 약간의 差異가 있으나 心理狀態 種類에는 變化가 없어 初經時의 心理狀態가 月經에 따라 再經驗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初經에 對한 學校 教育의 現況을 보면

1) 初經에 對한 知識習得은 學校에서 先生님으로 부터 얻은 것이 評點 5.88로 가장 많고, 어머니 또는 家族, 親舊가 比較的 높고, 冊이나 雜誌, 自己經驗, 영화, TV, Radio의 順이다.

2) 初經時에 생긴 問題點 解決을 위한 議論相對는 어머니, 家族이 評點 6.02로 가장 높고, 冊이나 雜誌,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한다. 親舊, 先生님의 順이다.

3) 初經에 對한 學習時期는 國校 6學年 43.2%로 가장 높고, 中學校가 34.6%, 國校 5學年이 18.2%의 順이다.

4) 學習科目은 特別活動이 46.0%로 가장 높고, 家庭 33.4%, 體育 16.5%, 科學이 4.1%의 順이며, 學習後 理解程度는 “조금안다”가 35.4%로 가장 높고 “들은적은 있으나 모른다”가 32.9%, “잘알고 있다”가 22.8%, “전혀모른다”가 8.9%의 順이다.

參 考 文 獻

1. 康熙涉：一部 都市地域 女性의 月經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8卷, 第1號, 1971. pp. 179~192.
2. 丘秉參：우리나라 女性 初經에 關한 研究, 大韓產婦會誌, 第20卷, 第9號, 1977. pp.623~643.
3. 權弊赫, 朴淳永, 李容旭：우리나라 女學生의 月經에 關한 調查研究, 서울大 保健大學院 人口問題論集, 第7號, 1968. 12. pp. 101~114.
4. 김명엽 · 강현숙：一部 都市地域에 있어서 中·高生의 月經에 關한 調查研究, 看護學會誌, 第2卷, 第1號, 1971. pp.63~72.
5. 김복용：國民學校 女學生의 初經에 關한 研究, 부산의사회지, 第15卷, 第12號, 1979. p. 27~33.
6. 김영희 · 박정희：女兒의 初經에 關한 調查研究, 大

- 韓 看護, 第9卷, 第2號, 1970, p.37~39.
7. 金元坤：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性教育 問題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6卷, 第1號, 1969. pp.186~199.
8. 金周成：韓國 女性의 月經에 關한 調查研究, 서울醫大雜誌, 第10卷, 1961. pp.29~42.
9. 朴容海：地理論으로 본 朝鮮人 女學生의 初經來潮 朝鮮醫學會雜誌, 第25卷, 1935.
10. 朴喆斌 · 尹南植：身體充實指數, 數學社, 1977.
11. 유숙자：光州 地方 女學生의 初經 年齡, 看護學會誌, 第1卷, 1970. p.59.
12. 李米愛：서울시내 女子 中學生의 成長 發育과 環境要因과의 關係, 1981.
13. 李文淑：都市地域 國民學校 學童의 女性生理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 第8卷, 第2號, 1971. pp.329~336.
14. 李永春：朝鮮人 女學生의 月經 初潮에 대하여, 鮮滿之醫界, 第101卷, 1929. p.33.
15. 李忠遠：自殺企圖와 月經 週期間의 相互關係, 神經精神醫學, 第16卷, 第2號, 1977, pp.185~190.
16. 안석철의：外來患者에서의 精神症狀과 月經週期間의 相互關係, 神經精神醫學, 11, 1972. pp.172~176.
17. 조옥순：嶺東地方 女學生의 初經에 對한 調查研究, 大韓看護, 第12卷 第6號, 1973. pp.85~88.
18. 張乘琳：青年心理學, 法文社, 1977. pp.95~97.
19. 하영수：산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1972.
20. E.R. Novak : *Novak's Textbook of Gynecology*, 4ed, 1975, p.90.
21. Freeman, A.N., Kaplan, H.I., and Sadodk, B. J. :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II*, Vol.2, 1975.
22. Helene Dentsch : *The Psychology of Women I*, Grune & Strattan, New York, 1944, pp.149-184.
23. Johnston, F.E. : *Critical weight at the menarche*, *Am. J. Disease child*, 129-19, 1975.
24. Parsons-Sammers : *Gynecology*, 2ed, Sammders, 1978, pp.203-204.
25. Sigh, H.D. : *Menarcheal age in South India*, *Am. J. OB & Gy*, 122-538, 1975.
26. T.C. Dann, D.E. Roberts : *End of the trend?, A 12 year Study of age at menarche*, *British medical J.* 3, 265-267, 1973.
27. Whisnant, L. & Zeyans L. : *A study of Attitudes toward Menarche in white middle class Am.*

- Adolescent girls, Am. J. Psychiatry, 132-8, Aug. 1975.*
28. Zacharias L, Richard J. Wurtman M.D. : *Age at menarche Genetic & Environmental influence. N. England, Med, 1969, pp.868-875.*
29. Zacharias L, and Wurtman, R.J. an Schatzoff, M. : *Sexual Maturation in contemporary American girls, Am. J. Obstet & Gyne, 108-833, 1970.*
-